Entrepreneurship & ESG 연구 제1권1호 : pp. 92~117
2021년 08월

청년 창업자의 창업지원이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

김도희(나다움연구소)*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창업지원
2.2 창업역량
2.3 창업만족과 삶의 만족
2.4 내재적 동기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과 자료 분석
3.2 변수의 측정과 신뢰도 검증
3.3 타당도분석
3.4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4.1 상관분석 결과
4.2 가설검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 요 약 >

창업은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창업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창업지원이 실제 청년층의 삶의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이 창업역량강화와 창업만족을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창업자의 특성인 내재적 동기가 창업역량과 창업만족 관계에서 조절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하 GOMS)'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SPSS 22를 활용하여 변인간의 관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 모델 6를 이용하여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창업지원은 창업 역량과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이 밝혀졌으며 창업만족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창업역량과 창업만족 사이에는 내재적 역량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삶의 만족 모형(SCCT)에 기반해 검증하여 창업역량과 창업만족,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이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창업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키워드 : 창업지원, 창업역량, 창업만족, 삶의 만족, 내재적 동기

* 주저자, 나다움연구소, kimdohui316@gmail.com
• 논문투고일 : 2021-07-15. • 수정일 : 2021-08-20. •게재확정일 : 2021-08-27.

Ⅰ. 서 론

현재 청년 시대는 사회 진입 자체가 중요한 화두가 되어 버린 세대이다. 대학 졸업자는 매년 쏟아져 나오는 반면 일자리는 갈수록 크게 줄어들어 취업 준비를 오래 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오재호, 2018).

실제로 경기도 청년층의 사회 참여 비율은 30.7%로 낮게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18년도 9.5%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9%대로 올라섰으며 취업자 수도 20대는 14만6000명 30대는 16만5000명 감소하여 1년 만에 30만 명 이상 줄었다(통계청, 2021).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개인의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Benz & Frey, 2008). 실업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 et al., 2008; Lucas, 2007).

실제로 대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삶의 만족도, 고용, 주거, 환경 등 11개 항목 측정)는 36개 회원국 중 24위이며 청년들의 안녕감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이 지각하는 행복은 다양한 심리 특성과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직업 획득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직업획득을 통해 경제적, 심리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Diener et al., 1984; 김재우, 2017).

정부는 경기 불황 및 장기침체와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에 주목하고 있으며(김재현 et al., 2020), 실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10년 동안 일자리 약 1만 4000개를 창출하는 등 창업은 경제 성장과 고용문제 해결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실업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고 있다.

창업의 효과성에 따라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청년 창업지원 예산규모를 1조 5,179억 원 으로 2020년도 대비 662억 원(4.6%) 증액(중소벤처기업부, 2021)하고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창업관련 교과목 개설, 창업 동아리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원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이수아, 2019).

창업지원의 확대가 창업만족,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정경희, 2020), 창업지원이 실제 청년층의 삶의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삶의 만족을 삶의 만족과 직업적 만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Lent와 Brown(2008)의 직업 및 삶의 만족 모형(SCCT: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 따르면 직

업은 삶의 만족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다.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개인의 성격 및 정서적 특질, 환경적 지지와 장벽, 직업적 자기 효능감, 근무 조건과 결과기대 및 목표지향행동이 있으며 이러한 단계를 통해 삶의 만족에 도달한다고 했다.

모형에 따르면 외부 환경적 지지인 창업지원은 직업적 효능감인 창업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직업적 만족인 창업만족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주고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역량 강화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지는 미지수이다.

청년들은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만 창업을 추구하지 않는다. 창업동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만족을 찾기 위해서' 가 49.0%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Jobkorea, 2021). 선행연구에서도 창업은 삶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직업선택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nz & Frey, 2004) 꿈과 기회를 찾아 창업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창업지원이 단순한 창업기업 등록 수 증가 또는 단편적인 경험을 위한 지원이 아닌 실제 창업지원을 통해서 사회진입에 대한 효능감이 증가하고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의 확대,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창업의지와 창업만족 증대가 기존 연구의 중심이었다면 창업지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만족이 실제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경제적 성과 창출만을 위한 창업 촉진이 아닌 청년층의 안녕감 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이 창업역량강화와 창업만족을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창업자의 특성인 내재적 동기가 창업역량과 창업만족 관계에서 조절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창업지원이 창업만족에 긍정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창업역량과 내재적 동기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창업지원

창업지원은 창업을 육성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창업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지원유형별 창업 사업화(5,130.7억 원, 45.9%), 연구개발(3,797억 원, 33.9%), 시설・공간 (1,493.8억 원, 134%), 창업교육 및 멘토링(692.8억 원, 62%), 행사・네트워킹(66.5, 0.6%)으로 구분하고, 창업단계별 예비, 설립 (1년 이내), 창업초기(1-3년), 성장기(3-7년), 재도전 단계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창업지원은 창업자에게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훈련, 사후관리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Johnson, 1990). 구체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는 창업자의 잠재적 능력과 특징의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특별한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 준비 공간 및 창업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Gartner & Vesper, 1994).

즉, 초기창업자의 창업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제품 제작, 공간지원, 자금지원, 멘토링, 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과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 확장 등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창업 자금 지원은 크게 지원 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 투자금 자금으로 구분된다. 창업지원 자금은 단기적 성과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봉·이승현, 2017; 전봉준, 2012).

창업 간접지원은 예비,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인프라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정경희, 2020). 창업 간접지원을 통한 지식, 경험의 획득은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도 창업자의 자신감을 높이고 창업 성공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고 있다(Allen & Eby, 2003).

대학에서도 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창업관련 교과목 개설, 창업 동아리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수아,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교육이나 창업프로그램의 체험이 자신이 창업을 성공시킬 자신감, 즉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기에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으며 창업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박재

화·박명수·김대엽, 2012).

2.2 창업역량

창업역량은 자원기반 관점에서 경영성과의 결정요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져 온 변수이다(Chandler & Hanks, 1994). 특히 창업역량은 창업초기 단계에서는 창업가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이 회사를 성장시키기는 원동력이 된다(안태욱, 2019).

창업역량은 직무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창업자의 능력으로 정의 된다(Klemp, 1980). 역량은 '특정 역할을 수행해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힘' 으로 정의된다(Boyatzis, 1982).

Morris et al.(2013)은 창업역량을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창업자의 가치,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총합으로 정의하였으며, 창업역량은 창업을 수행할 수 있는 창업자의 포괄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며(Baum et al., 2001) 창업역량의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분류된다.

성취역량, 기술적 역량, 창의성 역량, 개념화 역량, 전략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시장 감지 역량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시장지향성, 마케팅 역량, 네트워크 역량 등 기술적 역량, 시장 감지 역량, 네트워크 역량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본 선행연구도 있다(이상화, 2015).

창업가의 역량을 여러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창업역량을 기술적 역량, 시장인지 역량, 조직적 역량, 전략적 사고 역량 등으로 구분한(양수희 외, 2011) 선행연구에 기반해 기술의 확보, 적당한 인력의 확보, 업종선정으로 정의하였다.

창업기업의 경우 인력과 조직, 자금, 네트워킹 등이 모두 부족하기에 창업가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안태욱, 2019). 창업기업은 경쟁력 획득 과정에서 창업가의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Horne, 1992).

따라서 창업역량은 창업성공의 핵심변인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Cooper, 1993; Wiklund, Shepherd, 2005). 특히 자원기반 관점에서 경영성과의 결정요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져 왔다(Chandler & Hanks, 1994). 이는 창업자의 역량이 창업 시 기업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기업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창업자의 역량이 중요함을 의미한다(이대형,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역량은 창업만족도에 정의 관계를 가진다(이상화 외, 2015; 김영부, 2019). 김영부(2019)의 창업관련 개인적 특성변수와 심리적 요인들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개인발전의 기대감과 사회적 평판이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지원이 단순히 창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

니라 창업에 대해 기술과 지식 습득 등의 역량강화를 통해 개인 스스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 창업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창업 역량이 창업만족에 있어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은 창업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창업지원은 창업에서 예측되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해 창업에 대한 내적통제감을 향상시켜 역량강화와 창업만족을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2.3 창업만족과 삶의 만족

직업 및 삶의 만족 모형에서 직업만족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유의미한 변수이다. 직업만족은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혹은 특정한 조건이나 보상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를 의미한다(Spector, 1997). 직업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직업만족 정도가 업무성과와 직업군에 머무르는 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wel-being)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Coetzee & Stoltz, 2015; Tait, Padget & Baldwin, 1989).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고객만족, 직무만족, 교육만족, 조직만족, 창업만족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 창업가에게 직업만족은 창업만족을 의미한다.

창업만족은, 창업자가 창업가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창업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한 후에, 창업전의 기대와 창업후의 성과 간에서 불일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이선협・안은재, 2018).

Cooper & Artz(1995)는 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하여 창업에 대한 기대와 실제성과의 차이를 밝혔으며 창업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은 창업에 대한 기대와 실제 성과와의 차이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밝혔다. 즉, 성과에 대한 기대의 통제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창업만족은 창업자로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 창업가가 창업기업에 대해 현재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이며, 만족도는 부족함이 없이 흡족한 상태의 정도를 나타낸다(김경애, 2013).

창업자들이 창업에 만족하거나 만족을 경험한 상태라면 사업몰입이나 유지에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중요한 성과변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주관적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ynes & Brockman, 2009).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이명숙, 2015). 개인에게 있어 경험하고 싶어 하는 목표치의

생활조건과 현재 수준과 비교하며 결정되는 것이며 현재 상황과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 전반에 갖는 종합적인 만족감이다(Campbell, 1976).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삶의 만족이 다른 세대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봉언·김경식, 2016; 박현숙·권복순, 2006; 박선영, 2005). 청년기부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 및 인생 과업의 괴리감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장휘숙, 2009).

삶의 만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 수준 등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와 가치관, 기질과 성격, 내적특성 등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서봉언·김경식, 2016; 고영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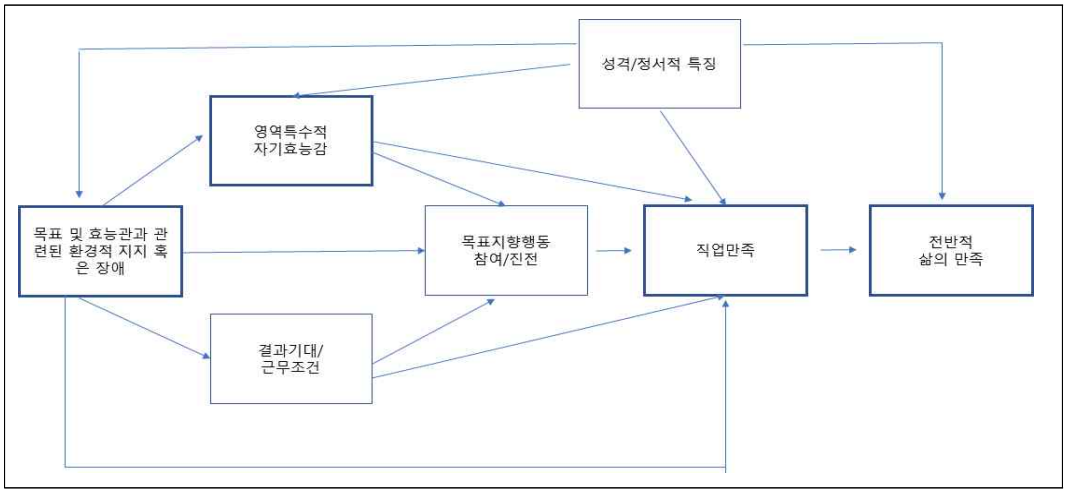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는 하나, 객관적인 요인보다는 삶에 대한 인식, 성격을 비롯한 심리·정서적인 특성 등 개인의 지각과 판단이 개입되는 주관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김재우, 2017; 고영남, 2012; Diener, Oishi & Lucas,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의 추구를 위해서는 직업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신윤정, 2019). 창업가에게 있어 직업만족인 창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창업프로그램, 정부지원자금, 네트워크,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변인이 검증되고 있다.

직업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직업 및 삶의 만족 모형(SCCT: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이 있다. 직업 만족은 삶의 만족감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유의미한 변수로 설명되며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의 성격 및 정서적 특질(personality and affective traits), 환경적 지지와 장벽(environmental support and barriers), 직업적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근무 조건과 결과기대(work conditions and outcome expectations) 및 목표지향행동(goal-directed activities)로 구분된다.

창업가는 단순히 부의 창출을 통한 만족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등(Phelps, E, 2013) 창업만족의 선행변인은 다양하기에 창업만족의 선행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과 창업역량, 창업만족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 될 수 있으며 SCCT모형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그림 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모형(Lent & Brown, 2008)



가설1.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은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1-1. 창업지원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2. 창업지원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3. 창업지원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4. 창업역량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5. 창업역량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6. 창업만족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7. 창업역량은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1-8. 창업만족은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을 매개할 것이다.

2.4 창업동기

산업심리학이나 조직행동론의 분야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요인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창업동기의 경우 창업 자체의 성공여부와 창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Begley & Boyd, 1987).

직업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업선택의 동기를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였으며 직업 활동 자체에 가치를 두는 내적 가치관과 결과나 효과에 가치를 두는 외적가치관 동기의 종류에 따라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김덕기・박효선, 2021).

Deci & Ryan(2002)의 자기결정 이론에서 동기는 행동 및 의도의 방향성과 지속성에 핵

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 이론에서 동기를 내재적(Intrinsic) 동기와 외재적(Extrinsic) 동기로 구분한다.

내재적 동기는 행동의 원인이 개인적 관심이나 즐거움 등 개인적 이유에 근거한 동기이다. 외재적 동기는 행동의 결과로 받는 보상이 금전적이거나 불이익을 피하는 등의 결과를 기대하는 동기이다(Deci & Ryan, 2002).

자기결정 이론의 중요한 의미는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행동을 수행한 사람들은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행동을 수행한 사람들보다 지속 가능성도 높고, 성과가 더 좋다고 하는 점이다(Deci & Ryan, 2002).

동기를 통해 개인의 특정한 행동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며, 동기부여는 일반적으로 모든 행동의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창업동기는 창업성공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창업자 특성과 함께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왔다(Shane et al., 2003; 유봉호, 2013).

창업동기는 창업성공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창업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변충규, 2014; 정찬연・이소영, 2020), 역량과 동기와의 관계에 있어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방윤희・안윤정, 2019).

특히 창업가들은 필요한 것을 성취하고자 동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모험과 경험 등을 위한 동기부여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Carsrud & Brannback, 2011). 이러한 동기는 개인의 역량과 상호 작용해 창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내재적 동기는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과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하 GOMS)’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GOMS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이행성과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이다.

비임금 근로자를 창업자로 간주하였으며 총 417명 중 국내에서 시니어창업자로 분류되는 40대 이상의 창업자 79명을 제외한 20-30대 청년 창업자 3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전체 표본 338명 중 남성이 64.5%, 여성35.5%, 20대 85.5%, 30대 14.5%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31.7%, 공학자연 37.3%, 예체능 31.1%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측정내용		인원	퍼센트
성별	남성	218	64.5%
	여성	120	35.5%
연령	20대	289	85.5%
	30대	49	14.5%
전공	인문사회	107	31.7
	공학자연	126	37.3
	예체능	105	31.1

3.2 변수의 측정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은 크게 창업지원, 창업역량, 창업동기, 창업만족, 삶의 만족으로 구분된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인 성별, 나이, 전공은 다중회귀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의 분석(factor analysis)과 개념타당성을 측정하는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신뢰도는 모든 변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60 이상의 기준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창업지원은 창업자에게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훈련, 사후관리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성요소에는 창업자의 잠재적 능력과 특징의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특별한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 준비 공간 및 창업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Johnson, 1990; Gartner & Vesper, 1994).

최초 6항목에서 전공지식, 이전 직장경험, 동아리 활동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으로 창업지원을 측정하였다.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의 창업보육과정’, ‘민간 창업 컨설팅,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현 일자리 시작에 도움이 된 정도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해당사항 없음은 0으로 처리하였다. 창업지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도 .960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창업역량은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창업자의 가치,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총합으로 정의되며(Morris et al., 2013), 기술적 역량, 사회적 역량, 전략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 등으로 구성된다(이상화, 2015).

본 연구에서는 창업역량을 '기술의 확보', '적당한 인력의 확보', '업종선정'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으로 측정하였다. 즉 창업준비 과정이 쉬울수록 창업역량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창업역량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3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창업만족이란 현재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라고 하였으며(남정민, 2014), 창업기업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인지상태, 이윤창출, 창업환경, 성취,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변화 등 창업자가 창업을 통해 느끼는 현재 상황과 미래의 기대감에 대한 인지상태 등 포괄적인 감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이무선, 2017).

최초 14항목에서 11항목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외재적 만족을 측정하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내재적 만족을 측정하는 '개인의 발전가능성', 전체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일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3가지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만족도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735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며(George, 1979)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평가로 정의된다. 삶의 만족은 인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소리, 2017). 따라서 다음 3가지 문항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7로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3.3 타당도 분석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진행한 후,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 값은 .751이며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통계값이 1232.239(df=66, p<.00)으로 나타났다. 공통성 값이 0.4이하로 나타나는 항목이 없고 각 변수는 아래 <표 2>와 같이 단일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요인분석 결과

	구성요소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Cronbach's α
창업지원 1.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의 창업보육과정	.934	-.006	.000	.077	.960

창업지원 2. 민간 창업 컨설팅	.810	-.009	.021	.083	
창업지원 3.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772	.065	-.068	.087	
삶의 만족 1. 개인적측면	.033	.861	.106	.187	.897
삶의 만족 2. 관계적측면	.045	.839	.055	.280	
삶의 만족 3.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도	-.031	.694	.177	.336	
창업역량 1. 기술의확보	-.013	.114	.814	-.058	.943
창업역량 2. 적당한 인력의 확보	-.020	.084	.672	.138	
창업역량 3. 업종선정	-.010	.046	.655	.057	
창업만족 1.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062	.161	.077	.711	.735
창업만족 2. 개인의 발전가능성	.067	.244	-.021	.627	
창업만족 3. 일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117	.214	.094	.579	

추출방법:프린시펄구성요소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멕스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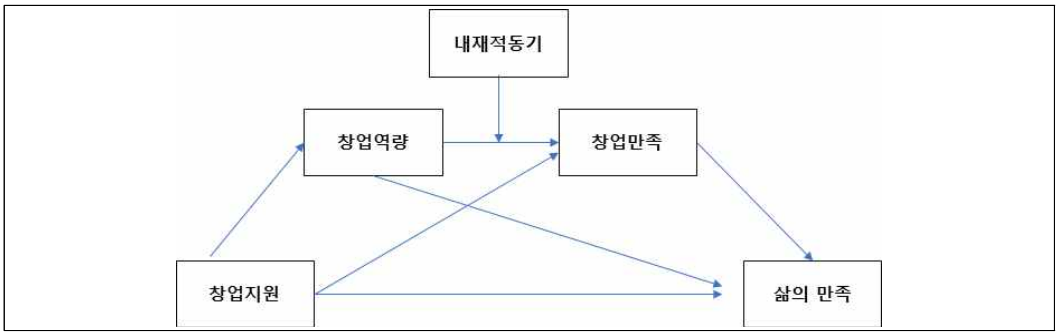
a. 6 반복에서 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 모델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어서, 창업역량, 창업지원과 창업만족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4.1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 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독립변수인 창업역량, 창업지원은 창업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창업만족과 삶의 만족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재적 동기와 창업만족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창업역량, 창업지원, 내재적 동기는 삶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성을 갖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상관관계

		창업 역량	창업 지원	창업 만족	삶의 만족	내재적 동기	평균	표준 편차
창업역량	Pearson 상관계수	1					2.33	1.52
창업지원	Pearson 상관계수	-.024	1				1.96	1.26
창업만족	Pearson 상관계수	.158**	.151**	1			3.72	0.72
삶의 만족	Pearson 상관계수	.062	.044	.409**	1		5.39	1.14
내재적 동기	Pearson 상관계수	.027	-.020	.138**	.070	1	0.45	0.50

4.2 가설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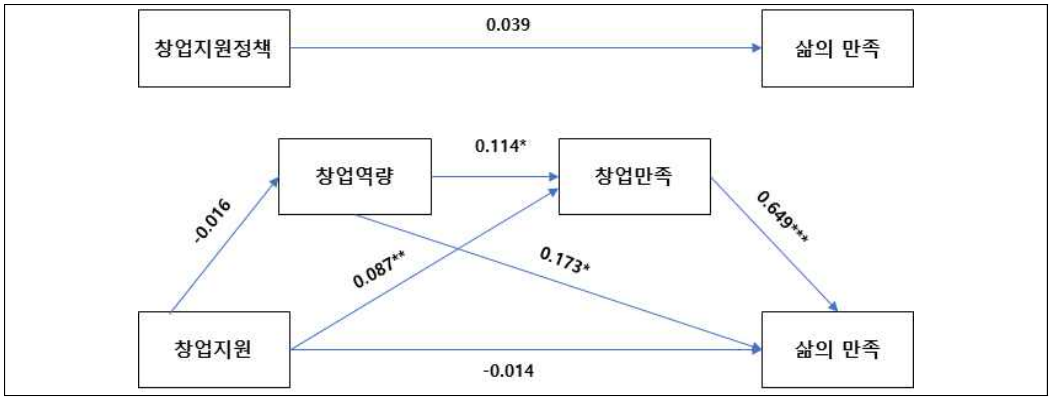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 모델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창업지원은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016, p>.05), 창업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087, p<.01), 종속 변인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0141, p>.05).

창업역량은 창업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0.114, p<.05),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173, p<.05.). 창업만족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649, p<.001).

한편 창업지원에서 삶의 만족 경로의 총 효과는(.039, p>.05) 매개변인인 창업역량능력과 창업만족이 투입되면서 직접효과 (-.014, p>.05)로 감소하였다.

<그림 3>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의 매개효과 경로



창업지원이 창업역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창업역량능력은 창업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창업만족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총 효과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표 4>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coeffect	se	t	p
1	창업지원	삶의 만족	0.039	0.049	-0.058	0.135
2	창업지원	창업역량	-0.016	0.037	-0.426	0.670
3	창업지원	창업만족	0.087	0.031	2.778	0.006
	창업역량		0.114	0.048	2.383	0.018
4	창업지원	삶의만족	-0.014	0.045	-0.316	0.753
	창업역량		0.173	0.068	2.539	0.012
	창업만족		0.649	0.080	8.132	0.000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이 가지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하였다.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검증에서는 총 효과의 크기와 직접효과 및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크기를 각각 보여준다. 95% 신뢰수준에서 상한 값과 하한 값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Shrout & Bolger, 2002).

연구모형의 총 효과 크기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총합으로 도출된다. 창업지원의 직접효과 크기는 -.014 [0.—.102～.074]로 창업지원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039[-.058～.135]로 나타나 이중매개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모형에서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Ind1(창업지원→ 창업역량→삶의 만족)에서 간접효과의 크기는 -.002[-0.020～.01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Ind2(창업지원→창업만족→삶의 만족) 의 간접효과 크기는 .057[016～.1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Ind3(창업지원→창업역량→창업만족→삶의 만족) 의 간접효과 크기는 -.001[-.008～.00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총 간접효과가 .053[007～.1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Ind1(창업지원→창업역량→삶의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단일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Ind2(창업지원→창업역량→창업만족→삶의 만족)는 단일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Ind3(창업지원→창업만족→삶의 만족)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참조).

<표 5>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구분	Effect	BootSE	95%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0.039	0.049	-0.058	0.135
직접효과	-0.014	0.045	-0.102	0.074
총간접효과	0.053	0.024	0.007	0.102
Ind1	-0.002	0.008	-0.020	0.012
Ind2	0.057	0.0214	0.016	0.100
Ind3	-0.001	0.003	-0.008	0.005

Ind1 창업지원 → 창업역량 → 삶의 만족

Ind2 창업지원 → 창업만족 → 삶의 만족

Ind3 창업지원 → 창업역량 → 창업만족 →삶의 만족

가설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은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기각)
가설1-1. 창업지원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가설1-2. 창업지원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가설1-3. 창업지원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채택)
가설1-4. 창업역량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채택)
가설1-5. 창업역량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채택)
가설1-6. 창업만족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채택)
가설1-7. 창업역량은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을 매개할 것이다.(기각)
가설1-8. 창업만족은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을 매개할 것이다.(채택)
가설2. 내재적 동기는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채택)

창업역량과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별, 나이, 전공, 창업지원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창업역량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내재적 동기를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상호 작용항(창업역량 * 내재적 동기)을 투입하였다. 3단계와 4단계에서 R^2 변화량과 상호 작용항의 유의성을 통해 조절효과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조절효과 검증결과 <표 6>과 같이, 종속변수: 창업만족 회귀모형은 1단계($F=3.032$, $p<.05$), 2단계($F=3.265$, $p<.05$), 3단계($F=3.295$, $p<.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4.8%($\Delta R^2=.072$), 2단계 6.2%($\Delta R^2=.017$), 상호작용항이 들어간 3단계 7.9%($\Delta R^2=.024$)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80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는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82$, $p<.05$).

〈표 6〉 창업역량, 창업지원과 창업만족 사이에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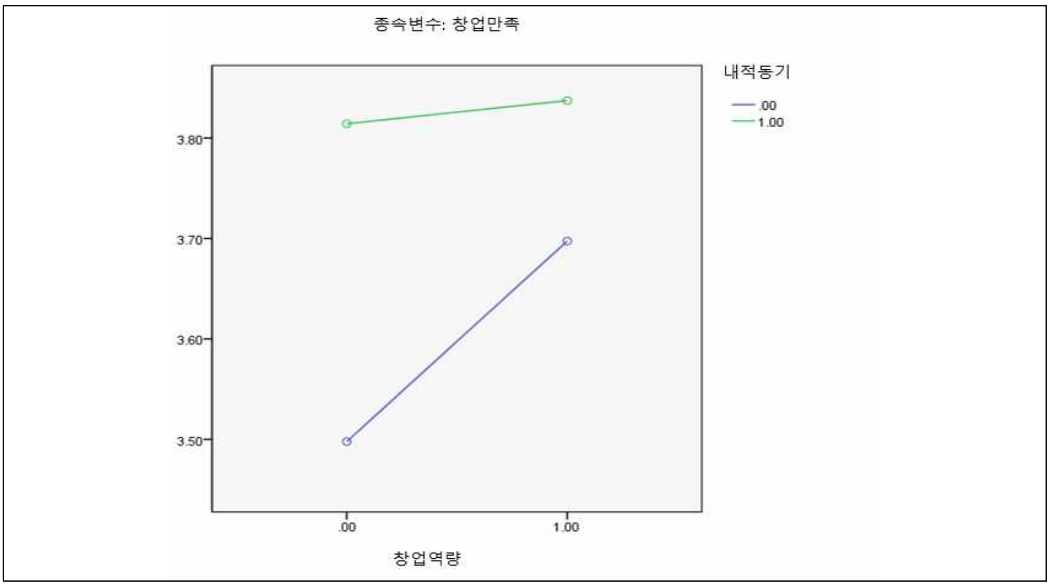
단계	변수	B	S.E	β	t	p	F	R^2 (ΔR)
1	(상수)	3.390	.437		7.748	.000	3.032 (p=.007)	.048 (.072)
	성별	.039	.105	.025	.371	.711		
	나이	.014	.015	.063	.921	.358		
	전공1	.106	.119	.069	.890	.375		
	전공2	-.141	.111	-.098	-1.270	.205		
	창업역량	.117	.053	.141	2.190	.030		
	창업지원	.107	.037	.184	2.867	.005		
2	(상수)	3.336	.435		7.668	.000	3.265 (p=.003)	.062 (.017)
	성별	.043	.104	.028	.409	.683		
	나이	.015	.015	.066	.979	.329		
	전공1	.123	.119	.080	1.035	.302		
	전공2	-.103	.112	-.071	-.923	.357		
	창업역량	.121	.053	.146	2.288	.023		
	창업지원	.108	.037	.186	2.912	.004		
	내재적 동기	.189	.090	.133	2.097	.037		
4	(상수)	3.326	.431		7.715	.000	3.295 (p=.001)	.079 (.024)
	성별	.038	.103	.025	.365	.715		
	나이	.015	.015	.069	1.027	.305		
	전공1	.098	.118	.064	.828	.408		
	전공2	-.104	.111	-.072	-.944	.346		
	창업역량	.121	.053	.146	2.265	.024		
	창업지원	.095	.037	.163	2.554	.011		
	내재적 동기	.354	.117	.250	3.014	.003		
	창업역량X내재적동기>	-.228	.104	-.182	-2.183	.030		

a) 표본특징 : b) *p<.05, **p<.01, ***p<.001b)종속변수:창업 만족

가설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6. 내재적 동기는 창업역량과 창업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채택)

<그림 4> 창업역량과 내재적 동기 조절효과



보다 자세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4>과 같이 추가 분석하였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은 전반적으로 창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내재적 동기가 낮은 집단은 창업역량에 따라 창업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한다. 즉,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보다 내재적 동기가 낮은 집단이 창업역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 SCCT모델에서 제시한 것처럼 창업지원은 창업역량, 창업만족을 거쳐 삶의 만족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업지원은 창업역량과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만족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창업역량은 창업만족과 삶의 만족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창업지원은 물질적, 무형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창업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창업에서 예측되는 어려움을 줄여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해 창업에 대한 내적통제감 향상에 영향을 주어 창업만족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창업지원은 창업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창업자의 입장에서 창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창업만족은 창업지원과 삶의 만족을 매개하며 삶의 만족 추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 네트워킹,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이 창업만족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자의 특성변인(내재적 동기)은 창업역량과 창업만족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은 전반적으로 창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만족도를 측정할 때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보다 내재적 동기가 낮은 집단이 창업역량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만족은 창업전의 기대와 성과간의 불일치의 정도와 주관적 만족의 정도를 나타낸다(이선협, 2019). 즉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크다. Bandura(1996)의 사회 인지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사건, 개인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상호작용론에 근거한 자기조절체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적 요소인 참조적 사고(self-referent thought)는 외부적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지각하는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동기원으로 작동된다(Bandura, 1982).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은 내재적 동기가 주관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 그 외에 요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내재적 동기와 창업역량 모두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창업지원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분석 결과 창업지원은 창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향상시키지만 창업역량 강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창업역량은 창업만족과 삶의 만족 두 가지 요인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만족을 거치지 않더라도 창업역량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자신의 역량에 대한 효능감의 중요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역량에 대한 효능감은 내재적 동기와 상호작용할 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창업교육 및 지원은 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 및 기술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와 같이 창업자의 지식 및 기술 기반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꾸준히 필요하되 창업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인식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창업지원이 단순한 창업기업 등록 수 증가 또는 단편적인 경험을 위한 지원이 아닌 실

제 창업지원을 통해서 사회진입에 대한 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경애(2013), 소상공인의 심리적 특성, 창업가정신, 창업만족, 창업추천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디저트 카페 창업자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덕기, & 박효선. (2021). 군사학전공 대학생의 공공봉사동기, 직업선택 동기, 전공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40, 25-42.

김영부. (2019). 창업관련 개인적 특성변수와 심리적 요인들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 180-189.

김재우. (2017). 한국인과 일본인의 주관적 행복: 생애주기별 결정요인 비교. 한국사회학, 51(4), 1-46.

김재현・이성호・남정민(2020),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사례분석-10 개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을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10(6), 96-108.

김창봉, & 이승현. (2017). 창업지원제도가 1 인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41-54.

남정민(2014), 업종별 창업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업종별 창업자의 사업소득 및 창업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벤처창업연구, 9(5), 13-20.

박선영. (2005). 대학생들의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서울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3), 71-92.

박현숙, & 권복순. (2006).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5(1), 48-56.

방윤희, & 안윤정. (2019). 대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7), 147-161.

변충규・성창수(2014), 예비창업자의 창업동기에 따른 창업지원서비스의 중요도-만족도 (IPA) 분석: 청년창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29(5), 99-116.

서봉언, & 김경식. (2016). 한국 청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6, 91-115.

안태욱・한동희・강태원(2019),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73-83.

양수희, 김명숙, & 정화영. (201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3.

오재호. (2018).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슈 & 진단, (338), 1-26.

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 대한경영학회지, 26(10), 2669-2690.
이대형(2016),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역량특성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의 창업컨설팅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이무선(2017), 외식창업부동산점포의 입지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2(2), 77-86.
이명숙. (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이상화・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 (Flow)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이상화(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 및 창업가특성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호서대 학교대학원
이선협, & 안은재. (2018). 여성창업자의 창업동기가 기업가지향성과 창업의지를 매개로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3(6), 95-112.
이수아(2019), 창업가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10(3), 703-716.
이소리(2017), 삶의 만족도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원석・주동범(2016), 대졸 청년창업자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열린교육연구, 24(4), 139-161.
이은설・신윤정(2019),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본 중고등학교 교사의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 교사교육연구, 58(4), 683-698.
장수덕(2020), 무엇이 청년 창업자들을 만족하게 만드는가? 창업의 외재적・ 내재적 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5, 96-118.
장휘숙. (2009).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9-36.
전봉준(2012),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금의 영향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경희. (2020).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5(1), 59-70.
정찬영, & 이소영. (2020). 대학생의 내적 · 외적 동기와 창업교육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9), 145-157.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제2020-1호.

직장인과 대학생 10명 중 8명, ‘창업하고 싶어’ . (2021.05.14).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836&schCtgr=120001&schTx

t=%EC%B0%BD%EC%97%85&Page=1.

통계청(2021). 청년취업률추이. Retrieved 2021. from http://www.index.go.kr/.

(2) 국외문헌

Aiken, L. S. &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Allen, T. D., & Eby, L. T. (2003). Relationship effectiveness for mentors: Factors associated with learning and quality. Journal of Management, 29(4), 469-486.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Baron, R. M. & Keny, D. A. (1986), The mediator-moder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iders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egley, T. M., & Boyd, D. P. (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79-93.

Benz, M. & Frey, B. S. (2004), Being independent raises happiness at work.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11(2), 95-134.

Boyatzis, R. E.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February, pp. 117-124.

Carsrud, A., & Brännback, M. (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Chandler, G. N. & Hanks, S. H. (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331-349.

Coetzee, M. & Stoltz, E. (2015), Employees' satisfaction with retention factors: Exploring the role of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9, 83-91.

Cooper, A. C.(1993), Challenges in predicting new firm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41-253.

Cooper, A. C., & Artz, K. W. (1995).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for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6), 439-457.
Deci, E. L., & Ryan, R. M. (2002).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Gartner, W. B. & Vesper, K. H. (1994),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cesse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3), 179-187.
George, L. K. (1979). The happiness syndrom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in the study of social-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hood. The Gerontologist, 19(2), 210-216.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Haynes, P. J. & Brockman, B. K. (2009), SATISFACTION, STRESS5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15(1/2), 1.
Horne, A. (1992). The Origins of Entrepreneurship. Inc. Magazine, June, 49-62.
Johnson, D. W. & Johnson, R. T. (1990), Cooperative learning and achievement.
Klemp Jr, G. O. (1980), The Assessment of Occupational Competence. Final Report: I. Introduction and Overview.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 (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Phelps, E.(2013). Mass Flourishing: How Grassroots Innovation Created Jobs, Challenge, and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Shane, S., Locke, E. A. & Collins, C. J. (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tephan, U. (2018), Entrepreneur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32(3), 290-322.

Spector, P. E. (1997), Job satisfaction: Application, assessment, causes, and consequences, 3, Sage.
Tait, M., Padgett, M. Y. & Baldwin, T. T. (1989), Job and life satisfaction: A reevaluation of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and gender effects as a function of the date of the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3), 502.
Wiklund, J. & Shepherd, D. (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mall business performance: a configuration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 71-91.

<ABSTRACT>

The effect of entrepreneurs' start-up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start-up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Kim do hee*

Start-ups are becoming the core of solving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and start-up support is expanding accordingly. However, research on whether start-up support actually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of young people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start-up support affects life satisfaction through strengthening start-up competency and job satisfaction for young people, and to confirm whether the intrinsic motivation, a characteristic of a founder, plays a role in control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competency and job satisfaction. The panel data of the "College Graduates' Job Mobility Survey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MS)" were used, and the relationship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2, and the doubl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using the PROCESS Macro model 6.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start-up support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start-up competency and life satisfaction, but it was found that job satisfac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control effect of intrinsic competency between start-up competency and job satisfac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path through which start-up support affects life satisfaction is verified based on the Life Satisfaction Model (SCCT), revealing the importance of start-up competency, job satisfac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and can g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start-up support policy.

Keywords : entrepreneur, start up, motivation, competency, start-up support, lif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 First author author, Nadaum Research Institute, kimdohui316@gmail.com